

# 임실N치즈축제 추석연휴 겨냥

### 내달 6일 성공개최 위해 비상체제 전환 행정력 올린 부서간 협력 시스템 구축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17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성공적인 축제개최를 위한 비상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 직원의 전사화를 꾀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겨냥해 올해 30만 관광객 불이에 나선 임실N치즈축제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대량 선보이는 것은 물론 방문객 편의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모든 조직이 비상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 한달여 앞두고 전 조직을 축제준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부서간의 협력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줄 것을 연일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일 유망축제로의 진입을 위한 기본계획보고회를 연 데 이어 5일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 확대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대간담회에서는 핵심 프로그램 등 총괄적인 세부계획, 국화꽃 전시, 한우 직판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 등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중점 점검했다.

또한 '임실N치즈축제' 첫날인 10월 6일 진행되는 '제55회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계획과 참여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말에는 축제 장소인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를 모든 간부공무원이 현장행정에 참여해 마지막 축제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도 세웠다.

심 군수는 축제가 개최되기까지 거의 매일 축제 주무부서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작년 축제때 미진했던 교통대책 등 보안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평년보다 한 단계 높은 비상근무체제를 갖추도록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10일간의 가나간 명절연휴에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4일 추석명절을 보낸 귀성객들이 돌아가지 않고 6일 열리는 축제에 놀러올 수 있도록 '추석연휴 마케팅'에 전 직원이 헌연

일체가 되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 군수를 비롯해 임실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전 직원들은 핸드폰 컬러링을 치즈축제 홍보 멘트로 전환하는 등 홍보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군수는 "올해 축제는 임실치즈의 50년사를 기념하고,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천만송이 국화가 함께 어우러져 30만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공적 축제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임실군 직원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2017 임실N치즈축제'는 명절연휴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핵심소재인 치즈를 핵심 콘텐츠로 적극 활용, 전국단위 경연대회인 임실N치즈전국 어린이 요리경연대회, 전국어린이 치즈창작동요대회, 임실N치즈 스태프챌린지 등 10개 테마의 80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수입의존 미생물시장 판도 꿈틀

### 순창군 전통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에 100억원 반영 수입 7000억 시장 대체 기대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미생물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구축사업 관련 10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7,000억 규모 미생물 수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발효시장에 쓰일 전통발효 미생물을 연구·생산하고 전통발효식품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발효식품산업의 미생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토종 발효미생물을 식품관련 기업에 제공해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일대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미생물 수입 시장은 발효미생물 소재 수입에 6,500억원, 장류·주류 미생물 440억원 등 총 7,0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

고 있어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시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최근 상급육의 증가로 가정 간편식 소비가 늘어 장류시장 규모가 급감해 장류시장의 새로운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군은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이 국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3년간 꾸준히 농식품부를 설득해 사업예산 반영에 성공했다. 순창군은 이미 고추장 된장 등 전통장류를 토대로 산업화 가능 균주를 발굴 보유하고 있다. 보유자원수가 3만여종에 이르고 15건이 특허 등록됐으며 27건의 균주특허도 진행 중이다. 또 산업부의 한국형 유용균주 사업, 미래부의 글로벌 장건강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미생물과 건강기능소재 산업화에 독보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전통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국비 확보는 순창 장류 시장을 미생물 식품 분야로 한 단계 더 넓혀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의회 현장행정 분주

### 주요사업장 7개소 방문 점검

임실군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일 관내 주요사업장 7개소를 현장 방문해 주요사업 및 군정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 및 지역현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주민으로부터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실군의회 문영두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제시된 의견과 개선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개최한 '여름방학 세계희귀곤충 특별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세계희귀곤충 특별전 2만명 찾았다

###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람객 특별한 추억 선사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개최한 '여름방학 세계희귀곤충 특별전'이 2만여 명의 많은 방문객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남원시가 주최·주관하고 산림청 후원받아 운영된 이번 특별전은 '세계희귀곤충생태관', '세계희귀곤충표본관', '곤충놀이터', '열대나비관'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백두대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헤라를 레스장수풍뎠이, 황금사슴벌레, 코

카서스장수풍뎠이, 나뭇잎대벌레, 버시부라왕대벌레, 뮐엘러리무지개사슴벌레 등 14개국 40여종 2000여 마리의 희귀곤충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부에서 2020년 5000억 규모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발맞춰 곤충의 다양한 가치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선보인 행사로 많은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전시관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보다 수준 높은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다고 전하며 겨울방학에 있을 특별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이환주 남원시장 이용호 의원

## 이환주 시장-이용호 의원 남원시정 현안 '머리 맞대'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시장이 직접 시정 분야별 핵심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남원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발전의 꼭 필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 정상화와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추진에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남원에 초·중·고·대학,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가사 연구 및 복원사업,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남원시가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논의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전년도 지방재정공시 공개

순창군은 최근 책임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2016년 재정운용 결과에 대해 '2017년 순창군 지방재정공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재정공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2월(당해년도 예산)과 8월(전년도 결산)에 연중 2회 공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순창군의 살림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등 9개 분야 59개 항목의 공동공시와 특수공시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의 2016년도 전체 살림규모는 4,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천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662억원으로 1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2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창군 지방채무는 0원으로 2014년부터는 지방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20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구해줬더니 주먹질... 구급대원 수난시대

### 도 폭행피해 매년 증가세

### 남원소방서 "관용 없다"

###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지난 4월 전주에서 두 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

남원소방서는 늘어나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3년 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총 12건으로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치 현황을 보면 벌금 3건, 징역 6건, 재판 중 1건, 기타 2건이며, 이중 가해자의 91.6%가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주취자 대응 강화, 폭행 채증장비 확보, 강력한 법적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